



신세대 불자가수들 인기 '짱'·포교효과 'UP'

한국 가요계에 젊은 불자 가수들의 파워가 두드러지고 있다. 불자이면서도 개인 프로필이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자'라고 밝히기를 주저하던 예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프로필에도 빠짐없이 종교를 '불교'로 기재하고, 불교적인 사상을 자신의 음악활동에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불자 가수들이 눈에 띄고 있다.

최우명 일체유심조

최우명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존경하는 인물은 성철 스님과 대공 스님. 이 프로필의 주인공은 힙합 뮤지션 MC 스나이퍼(25·본명 김정우, 사진 왼쪽).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를 힙합풍으로 리메이크한 타이틀곡으로 1집 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1집 10여만 장, 2집 '초행(初行)'도 발매 첫 달 3만여 장이 판매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수다. 현재 그의 웹사이트 회원수는 2만 6천명을 훌쩍 넘어섰다.

MC 스나이퍼는 어린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사찰을 찾곤 했던 영향을 받아 지금도 영월 법흥사, 영주 부석사 등의 절을 종종 들른다. 이처럼 불교에 심취한 그의 앨범에는 불교적 철학관이 스며든 사회 풍자곡이 주를 이룬다. 뛰어난 음악 실력을 인정받아 최근에는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여한 바 있는 세계적인 일본 뮤지션 류이치 사카모토와 함께 앨범 작업 중이다.

1997년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로 가수에 데뷔한 은지원(25, 사진 오른쪽) 씨는 솔로가수로 변신을 꾀해 최근 힙합풍의 앨범을 내놓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어린시절 외국에서 살면서 잠시 다른 종교도 접해봤다고 하지만 은 씨의 프로필에는 '불교'가 항상 따라다닌다. 그의 뿌리인 불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듯 2002년에는 불교 편지 앨범 '인연'에 참여, '이제'라는 곡을 부르기도 했다. 은 씨는 올해 가을부터 MBC 라디오 DJ, 영화배우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도 하다.

불교음반에 가요 수록

아예 구성원 전체가 불자인 그룹도 있다. 지난 해 '낭만 고양이'로 청소년층 뿐 아니라 30~40대 등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은 체리필터(사진 중간, 조유진(26), 손상혁(26), 정우진(27), 연운근(26) 등)으로 구성된 4인조 혼성밴드다. 이들은 얼마 전 모 케이블 음악제와의 인터뷰에서 멤버 전체가 불교신자라고 답해 화제가 됐다. 그룹의 흥일점이자 보컬인 조유진 씨의 취미는 더욱 특이하다. 그녀의 취미는 '불경 독송'. 개신교 재단의 고등학교를 졸업해 다른 종교를 지닌 걸로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일단 조 씨의 취미를 알게 되면 그런 오해는 자연히 사라진다.

이밖에도 서울대 출신으로 데뷔 때부터 화제를 모았던 남성 듀오 UN의 김정훈 씨도 신세대 불자가수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가수들이 불자나 아니냐에 따라 음악성과 인기가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가수 등 유명인들의 종교에 유독 관심이 많다. 네이버나 엘파스 등 인터넷 지식검색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타들의 종교다. 이는 내가 좋아하는 우상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그들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팀멤버 전원이 불자

MC 스나이퍼의 웹사이트에서는 "솔직히 특별히 믿는 종교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스나이퍼 앨범을 접하면서 불교 쪽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돼 학교의 불교 동아리에 가입했다"(네이버인)는 등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신세대 불자 가수들의 싹은 청소년 포교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 '반가사유상' 탁본을 연상시키는 김현아 작가의 '인생경계'.

한지위에 나뉜 반가사유상 무한한 감동과 여운 피어나

인간이 사유(思惟)하는 모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각이 로망의 '생각하는 사람'과 불교의 '금동반가사유상'이다. 특히 '반가사유상'은 부처님이 인간의 생로 병사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가지고 보리수 아래서 명상하는 모습을 담은 조각상이다. 인류의 정신적 수호인 부처님의 초발심이 모든 수행자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 진 듯하다.

이런 의미의 '반가사유상'을 작가 김현아는 수묵이라는 전통적인 기법으로 한지위에 펼쳐 놓았다. 마치 탁본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기법이다. 단아한 자세로 턱을 고

이고 있는 '반가사유상' 특유의 자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화면에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얼핏보면 조각과 회화란 별개의 장르를 통해 나타낸 '반가사유상'은 결과물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반가사유상'을 그리면서 김현아씨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경계(境界)의 미학'이다. 즉 감상자가 눈에 보이는 형상 이외에 느낄 수 있는 무한한 감동과 여운을 말한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 김씨가 내놓은 작품 제목 마다에는 '경계'란 단어가 붙어 있다.

김현아 개인전 9일 까지

김현아씨는 "나는 '금동반가사유상'의 모습에서 단순히 우리 전통문화유산이기 전에 명상 수행을 통한 인간의 경계지향적인 실존 모습을 보았다"며 "인간의 정신적인 경지를 담고 싶은 의지가 '반가사유상'을 작업 소재로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12월 9일까지 서울 인사동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02)733-9512

김주일기자

대상 포항 MBC 다큐 '남산' 4부작 공로상 불교 TV '자비의 천수천안'

제11회 보리방송문화상 수상작 선정

(사)불교도 보리방송문화상 운영회는 11월 25일 제 11회 보리방송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보리방송문화상은 일반TV 부문 대상 및 우수상, 불교방송 부문 연출상, 불교TV 부문 특별상으로 나누어 선정됐다. 일반 TV부문 대상에는 포항 MBC의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남산 4부작(연출 김옥환)'이, 우수상에는 원주 MBC의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연출 정문수)'가, 불교 방송 연출상 부문에는 '한가위 특집 3부작- 2003 한국에서 노인으로 살아가기(연출 박광열)', 불교TV 공로

상에는 '자비의 천수천안(연출 이천운, 홍태신)'이 각각 선정됐다. 김재일 보리방송모니터회장은 "작년의 2배인 총 22편의 프로그램이 응모했다"며 "각 방송사의 추천에 이어 자체 예심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등 까다로운 선정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또 제 11회 자랑스런 불자상 시상식(상장: 박범훈)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한상희 기자



문화소식

제 2회 불자가수 가요제 5일 불교방송 대법당 동산불교대, 11일 개최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환선)는 12월 5일 오후 1시 서울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제 2회 불자가수 가요제'를 개최한다.

이번 가요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 사찰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4명이 결선 무대를 펼친다. 가요제 입상자는 한국 연예협회 가수 분과에 등록할 수 있으며, 회원 증도 수여 받는다. (02)713-2905

동산불교대학이 12월 11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 2회 한·일 불교문화교류 찬불가 공연'을 개최한다. 1부는 하유 스님의 법고의식으로 시작해 제니스트 앙상블의 중창, 부채춤, 다도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일본측에서 마련한 피아노와 플루트 연주, 일본 양원사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이어진다. (02)732-1206

김주일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Bn* 불교TV <ch 32>
06:30 새로운 인생	3월 09:20 묵연 스님의 시와 사랑
08:55 우리들의 찬불가	4월 12:00 향토음식 기행
11:10 행복스튜디오	5월 20:10 밥상에 도가 있다
12:00 정오 종합뉴스	6월 09:20 조선 불교 탐방사
14:05 김용우의 국악발견	7월 14:00 정음 스님의 찬불가 교실
19:00 저녁종합뉴스	8월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아법문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9월 08:30 수진 스님의 화엄경 강의

아이리ajt

- 불교방송: 새로운 인생(12월 4일 06:30-07:00) - 이날 방송은 상담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를 짚어본 '라디오 상담센터'와 한 주간 실버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실버 취업정보'로 꾸며진다.
- 불교텔레비전: 밥상에 도가 있다(12월 5일 20:10-21:00)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화로 인해 스스로 건강을 해치고, 나쁘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같이 삶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화를 억제, 조절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밥상의 도'를 설명하는 시간이다.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 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당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법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제품속에 영연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철기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뭇 재료를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미술이 편안한 향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단배셀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액적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향 물질의 힘이 담긴 향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적은알은 두세알)씩 두루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경계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플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터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김도현

육법등 (六法燈)

의장등록제 2002-33243호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031)541-1417 / 팩스: 031)541-1419

충남 및 대리점 모집